

조현병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김정숙

공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수료

Schizophrenic Patients Impact on Quality of Life

Jeong-Suk Kim

Department of nursing, Doctor's completion course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조현병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본 연구는 C시 지역에 거주하는 조현병환자 125명을 대상으로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자료는 SPSS 21.0 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산출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6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 까지 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현병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는 종교와 지지하는 팀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p<.05$)가 나타났다. 삶의 질은 자아존중감($r=.270$, $p<.0001$), 가족지지($r=.348$, $p<.0001$)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아존중감, 병식, 가족지지는 삶의 질을 49.5% 설명하였으며, 이중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 조현병 환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주제어 : 가족지지, 병식, 삶의 질, 자아존중감, 조현병

Abstract The study was done to compare quality of life by family therapy, self-esteem of teen insight factors which explain quality of life in individuals with schizophrenic patient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125 schizophrenia people in C reg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21.0,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calcu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mpact quality of life of clien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y religion, support team($p<.05$). Quality of life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and family suppor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49.5% of the self esteem, insight, family support showed the quality of life. Development of programs for strengthening family support and self esteem is required for proper quality of life.

Key Words : Family support, Insight, Quality of life, Self-esteem, Schizophrenia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삶의 질은 연구 조사되어지는 대상자에 따라 주관적인 차이가 있으며 사회, 경제적 차이와 질병, 건강, 치료 및 부작용과 관련된 포괄적 안녕상태라 정의 할 수 있다 [1].

조현병 환자의 삶의 질은 증상을 완화하고 전반적 기능, 상태를 포함하여 최대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질적이

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다[2,3].

우리나라는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계기로 정신 보건정책에 변화가 일어났고 조현병 환자에게 최적의 간호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간호활동의 필요성 또한 제기 되었다[4]. 조현병 환자의 퇴원 후 사례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활성화가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최근 들어 다양한 현장실무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신보건 분야에서도 환자의 질병이나 치료와 관련하여 삶의 질을 증진

*Corresponding Author : Jeong-Suk Kim(nursekim0305@hanmail.net)

Received January 10, 2018

Accepted February 20, 2018

Revised February 05,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시키려는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현병 환자는 재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며 재입원을 반복하게 되어 병이 만성화 되는 경향이 강하다.

병의 만성화는 경제적, 정서적으로 가족들의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인지기능을 손상시켜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5,6]. 또한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으로 인해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7]. 조현병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활동치료요법과 삶의 질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있다[8-11]. 자아존중감과 우울, 가족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연구,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조현병 환자 대상의 삶의 질 연구등이 대부분이었다[12-14]. 그러나 조현병환자의 병식 관련 연구는 부족하고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재가 조현병환자 대상으로 병식, 자아존중감, 가족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조현병의 심리적 특성을 아우르는 융합적 연구관점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조현병 환자의 가족지지, 자아존중감, 병식과 삶의 질 관계를 파악해보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조현병환자의 전반적 기능 및 정신과정 증상을 탐색하고 삶의 질 향상 접근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조현병 환자의 병식, 자아존중감, 가족지지와 삶의 질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삶의 질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병식,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삶의 질에 대한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삶의 질에 대한 병식, 자아존중감, 가족지지와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재가 조현병환자의 병식, 자아존중감, 가족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C지역 재가 조현병 환자이다. 연구대상자 선정은 지남력 장애가 없고 설문에 긍정적이고 협조적이며 조현병진단을 받은 대상자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였으며 대상자수는 G*Pow 3.1.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회귀분석방법에 의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8,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에서 변수 4개로 하였을 때 총 89명이 되었다. 본 설문은 125명을 설문하였으므로 표본크기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2.3 연구도구

2.3.1 병식

병식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David가 개발한 척도를 Byen 수정[15],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 총 10개의 문항으로 병식유무 5문항, 치료필요성 인지여부 4문항, 증상인지여부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항상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병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yen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8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가 개발한 척도를 전병제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16,17]. 이 도구는 자아존중감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척도로서 총 10개의 문항으로 긍정문항 5개, 부정문항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부정문항 5개는 역환산하였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3.3 가족지지

가족지지는 Cobb이 개발하고, Kang이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18,19]. 이 도구는 총 13개 문항으로 긍정문항 10개, 부정문항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부정문항 3개는 역환산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90이었다.

2.3.4 삶의 질

삶의 질은 조현병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Happy-QoL 도구를 사용하였다[20]. 이 도구는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5개는 부정문항으로 역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문항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91 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의 빈도분석, t-test와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삶의 질 차이

Table 1에서 보면 성별분포는 남성 87명(69.6%), 연령은 평균 42.38세로 40대가 45명(36.0%)로 가장 많았고, 30대 34명(27.2%)순이었다. 결혼형태는 미혼이 84명(67.2%), 종교는 종교 생활하는 군이 80명(64.0%), 학력은 고졸이 47명(37.6%)로 가장 많았다. 동거구분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군이 73명(58.4%)로 많았고, 지지형태는 가족지지가 50명(40.0%)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삶의 질 차이에서는 종교($F=5.02, p=.027$), 지지팀($F=4.38, p=.01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2 병식,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삶의 질 정도

Table 2를 보면 병식의 평균점수는 3.33점, 자아존중감 2.75점, 가족지지 2.74점, 삶의 질 2.97점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with respect to the quality of life (N=125)

Variable	Division	n(%) or M±SD	Quality of Life	t or F (p)
Gender	male	87(69.6)	2.90±.63	-.17 (.076)
	female	38(30.4)	3.12±.61	
Age	20s	11(8.8)	2.76±.70	1.101 (.351)
	30s	34(27.2)	2.84±.69	
	40s	45(36.0)	3.02±.54	
	50s	30(24.0)	3.07±.65	
	60s	5(4.0)	3.20±.71	
	Average	42.38±9.50		
Marital status	Married	41(32.8)	2.91±.64	.26 (.109)
	Unmarried	84(67.2)	3.10±.61	
Religious	Do	80(64.0)	3.07±.62	5.02 (.027)
	Don't	45(36.0)	2.88±.63	
Education	≤6	20(16.0)	3.00±.57	0.11 (.949)
	9≤	42(33.6)	3.00±.62	
	12≤	47(37.6)	2.94±.71	
	13≤	16(12.8)	2.91±.63	
with-family	yes	73(58.4)	3.01±.61	.44 (.590)
	no	52(41.6)	2.92±.66	
Support team	Family	50(40.0)	3.05±.55	4.38 (.014)
	Community	40(32.0)	2.92±.68	
	others	35(28.0)	2.92±.68	

Table 2. Degree of insight, self esteem family support quality of life

Variable	M±SD	Range
Insight	3.33±.34	2.60-4.30
Self-esteem	2.75±.53	1.00-4.00
Family-support	2.74±.74	1.15-4.85
Quality of life	2.97±.63	1.40-4.20

3.3 삶의 질과 병식, 자아존중감, 가족지지와의 상관관계

Table 3을 보면 병식은 자아존중감($r=.270$), 가족지지($r=.348$), 삶의 질($r=.376$)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은 가족지지($r=.567$), 삶의 질($r=.541$)과, 가족지지는 삶의 질($r=.672$)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Variable	Insight	Self-esteem	Family support	Quality of life
Insight	1	.		.
self-esteem	.270 (.002)	1		.
family support	.348 (.000)	.567 (.000)	1	.
Quality of life	.376 (.000)	.541 (.000)	.672 (.000)	1

*p<.0001

3.4 삶의 질 영향요인

조현병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병식, 자아존중감, 가족지지를 독립변수로 하고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여 입력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Table 4를 보면, 가족지지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49.5%의 설명력이 있었다. 질적자료인 종교는 종교 있는 군을 더미변수로, 지지팀은 가족팀을 더미변수로 하여 이를 통계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즉, 종교가 없는 군은 있는 군에 비하여 삶의 질에 덜 영향을 미쳤고 가족팀은 지역사회와 기타 팀에 비하여 삶의 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fluencing factor for quality of life

Variables	B	SE	β	t	p
Insight	.267	.127	.143	2.09	.038
Self esteem	.260	.092	.219	2.81	.006
Family-support	.424	.068	.498	6.23	.000
Religious	-.178	.118	-.135	-1.508	.134
Community	-.012	.120	.474	4.121	.014
others	-.462	.168	-.262	-2.780	.006

Adj.R² = 0.495., F=41.516, p=.000

4. 논의

본 연구는 조현병환자의 병식, 자아존중감, 가족지지를 파악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병식은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7,2]. 조현병환자의 병식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식이 높을수록 치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증상을 잘 관리 할 수 있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진다[21,22]. 따라서 병식은 치료적 방향을 제시하거나 심리사회적 기능과 예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병식형성 관련 교육,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을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행동하는 것이지만 조현병 환자의 자아존중감은 매우 위축되어 대인관계상능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및 치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7].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삶의 질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 와 일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4,14].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빼앗아 갈수도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한 죄책감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가족지지는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데 점수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지지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족지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 삶의 질과도 서로 상관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7].

가족지지는 조현병환자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그들을 지지하고 돌보는 것은 가족의 중요한 역할이라 사료된다.

삶의 질 평균점수는 정신장애인 들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대[23]. 또한 조현병 입원환자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대[24]. 이는 입원환자보다는 퇴원 후 재가 조현병환자들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재가 조현병환자들은 퇴원 후 각 지역사회기관의 가정방문 서비스 및 전화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는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 결과는 종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지지팀에서는 가족지지가 지역사회지지 및 기타 에 비하여 삶의 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나이, 결혼상태,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지지, 병식,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약 49.5%의 설명력을 보여주어 [7,25]연구와 유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C도 지역의 재가 조현병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가족지지가 유의한 변인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일부지역 일부 대상자만 설문조사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일회성의 연구로 끝나지 않고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조현병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재가조현병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중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재가 조현병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증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을 재가조현병환자로 제한하여 조사하였기에 추후에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와 비교해 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변인으로는 종교유무와 지지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개인관련 특성변인을 다양하게 비교해 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조현병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지지, 자아존중감, 병식 순이었다. 추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신건강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Y. So. Yeon (2012).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for the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 B. Y. Byeon. (2011). *A study on the Effects of Insight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Mental Disorder*. Master's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3] K. Z. Lee. (2012).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6th Edition*. Seoul : SoomoonSa.
- [4] H. S. Kim. (2012).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of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Master's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 [5] S. Y. You. (2012).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for the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Doctoral dissertation. Ewha University, Seoul.
- [6] U. K. Byun & S. S. Jun. (2011).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using Mental Health Cent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2), 157-166. DOI : 10.12934/jkpmhn.2011.20.2.157
- [7] S. H. Kim. (2006). *The Relationship among Chronic Schizophrenic Patients' Family Support,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Master's dissert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 [8] C. H. Choi. (2015). *The Effects of Art Therapy Program by Using Recreation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al and Quality of Life for Schizophrenia Patients in Close Ward*. Master's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Suwon.
- [9] O. A. Jang. (2013). *Effect of the Group Art Therapy on Stress Coping Strategy and quality of Life in Schizophrenia Patients*. Master's dissertation. Wankwang University, Iksan.
- [10] H. M. Choi. (2016). *The Effect of Group Music Therapy on the Emotion, Self Epress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Master's dissertation. Wankwang University, Iksan.
- [11] Z. H Kyun. (2013). *Effects of Emotion Management Training-Based Music Therapy Program on the Qualiity od Life and Anger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Master's dissertation. Wankwang University, Iksan.
- [12] Z. H Choi (2016). *Self-Esteem,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Chronic Schizophrenia. Lfe and Anger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Master's dissertation. Sungshin Woman's University, Iksan.
- [13] C. H. Jang. (2014). *The quality of life and related psychosocial factors of schizophrenic patients registered in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14] S. Y. Kim. (2014).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people with schizophrenia utilizing day utilizing day care service in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Master's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Suwon.
- [15] David, A. S. (1990). Insight and psychosi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6(6), 798-808. DOI : 10.1192/bjp.156.6.798
- [16] M. Rogenberg.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American, Princeton city,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7] B. Z. Jeon. (1974.).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self concept measurement*. Seoul. : Yonsei Publishing House.
- [18] S. Cobb.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e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DOI : 10.5353/th_b3124869
- [19] H. S. Kang. (1984). *An Experimental study of effects of reinforcement education for rehabilitation on hemiplegia patients' self-care activites*. Doctoral dissertation.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20] S. H. Kook. (2001). *The development of the model of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c disorder*. Master's dissertation. Chonbuk-National University, Cheongju.
- [21] Y. Y. Kim & H. S. Park. (2010). The effects of insight and empowerment on function and quality of life for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cad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 19(1), 1-21.
DOI : 10.12934/jkpmhn.2010.19.1.11
- [22] M. D. Gomez, A. Jarne, M. Figueras, S. Vidal, A. O. Torrej & F. Casellas. (2010). Insight and quality of life in Schizophrenia. *Schizophrenia Research*, 117(2), 283-284.
- [23] J. S. Kim, S. Y. Lee, K J. Lee & S. Y. Kim. (2013.) Mental disabilities mental health center services impact on quality of life. *The Korean of Health Services Management*, 7(2), 23-35.
DOI : 10.12811/kshsm.2013.7.2.023
- [24] J. H. Kim. (2017). Factors in relation to the quality of life hospitalized and outpatient schizophrenia. *M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25] Y. J. An. (2004). *An Effect of Family Function and Family Support Perceived by Chronic Schizophrenic Patients on Quality of Life*. Master's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Gyeong-San.

김 정 숙(Kim, Jeong Suk)

[정회원]



- 2003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16년 8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6년 5월 ~ 현재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과 겸임교수
- 2016년 12월 ~ 현재 : 충남 논산하나요양병원 재직 중
- 관심분야 : 노인, 우울, 정신, 삶의 질
- E-Mail : nursekim0305@hanmail.net